

NEWS LETTER

2021년 3월 22일 Vol. 40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차세대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명실상부한 ‘지역 최고’ 의료기관으로써 최근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HIS) 베스트 케어2.0(BESTCare2.0) 구축을 완료하고 성공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은 진료, 전자의무기록,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정보저장전달시스템(PACS), 일반관리 등 병원정보시스템의 대규모 플랫폼이다. 또 표준화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료 체계 강화와 의료진의 업무 효율화로 환자의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차세대 통합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선진화 및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데이터를 활용한 근거 중심의 환자진료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정확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한 병원으로써 양·한방 협진을 강화하고, 실시간 진료 및 경영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병원 경영효율성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의료원 산하병원으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데이터 연구중심병원 사업 등 정부의 헬스케어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학생 SCI급 논문 게재



노재원



황가은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학생들이 주도한 연구논문이 최근 SCI급 국제 저명학술지인 ‘분자와 세포(Molecules and Cells)’에 게재됐다.

논문의 주저자는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노재원 학생으로 ‘아노타민 6 이온통로의 칼슘에 의한 활성화 기전 분석’을 주제로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3학년 황가은 학생이 공동저자로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아노타민 6(Anoctamin 6)이 칼슘의존성 이온 통로로 칼슘 의존성 인지질 스크램블레이스가 세포 내 칼슘에 의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구조적 분석을 통해 규명한 것이다.

노재원 학생은 “김우경 교수님과 남주현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의 가르침과 동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가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남주현 지도교수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은 2017년 새롭게 개편된 정진교육과정에서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번 의과대학 학생들의 논문 발표는 동국대학교에서 새롭게 추진한 교육과정 개편의 결실을 맺는 성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불교용품 판매점 ‘연우’ 오픈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병원 1층 로비에 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불교용품 판매점 ‘연우(蓮友)’를 오픈했다.

새롭게 오픈을 시작한 불교용품 매장에는 천연염색을 한 예쁜 법복과 경전가방, 장식품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한쪽 벽면을 채운 책장에는 각종 염주가 진열돼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총무팀장은 “병원을 방문하는 스님 및 불자내원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내원객 및 환자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우매장에서는 법복, 가방 등 저렴한 가격으로 봄맞이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제11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 인사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제11대 동국대일산불교병원 병원장 소임을 맡게 된 권범선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동국대병원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이해원 전임 병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포괄수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 간호간병 서비스, 편의시설 확대 등등 많은 업적을 이루셨고 이제 제가 그 뒤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입니다. 양질의 진료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하여 환자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원과 직원이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진료와 연구가 모두 우수할 때 가능합니다. 진료의 질과 양이 모두 확대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원과 한방병원이 함께 발전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제가 동국대병원에 몸담은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국의대 부학장과 동국대병원 부원장 그리고 의료원 기획처장을 하면서 동국대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병원장으로서 동국가족 여러분과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차가운 머리로 판단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병원장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서 발전하는 행복한 동국대병원을 만들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